

풍경1: 대낮의 불안

원전주변 마을이라는 강렬한 주제를 다룬 정주하의 이미지들은 놀라움을 주거나 저항을 하게 하는 내용이 아니다. 다분히 사변적이다. 대낮에 작업하면서 콘트라스트를 누그러뜨리고 침묵하듯 조용히 보여주는 접근방식은 너무나 단순해서 얼핏 보면 지나쳐버리기 쉬운 정도다. 그러나 그 평범한 이미지들 속에 존재하는 사물들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인간의 모든 감수성이 다 증발해 버리고 앙금처럼 남아 있는 불안이 마치 공기처럼 이미지 속을 가득 채운다.

떨어져 나간 과거인지, 내다볼 미래인지 알 수 없는 불야성의 고층빌딩을 찍은 액자가 한쪽 벽을 채운 오락실, 행인 한 명 없는 길가에 머리집, 문 닫은 세월을 짐작하게 해주는 다방, 텅 빈 식당 그리고 인적이 드문 아니 거의 없는 거리, 혹은 골목에서 만나는 한 명 또는 두 명의 사람들.

에밀 졸라에 의하면 “어떤 사물(대상)을 사진으로 찍어보기 전에는 진정으로 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한다. 이 말은 사유와 있는 그대로의 현실사이에 카메라를 매개로 다르게 보는 기준이 필요함을 뜻한다. 그런데 문제는 ‘다르게 보는 기준’이란 그리 쉽게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님에 있다. 그것은 “우리가 ‘사유’라고 부른다든지 ‘내면’이라 부르는 것이 사회적인 관습(언어게임)에 불과”하고, “나는 생각한다”는 전혀 ‘나’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며, 내적인 것은 철두철미하게 사회적(제도적)”<sup>1)</sup>임을 의심할 때 가능하다.

우리의 사유라는 것은, 마치 ‘자기 자신’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관계체계’에서 시작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것이 사실은 제도에 의해 형성된 것임을 의심해야 한다. 아울러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작가의 카메라는 바로 이 지점에서 습관으로서의 사유와 현실사이에 존재하는 ‘거리’를 충실히 보여 준다. 사회적인 관습으로서의 사유를 제거해 버리고, 그 대신 지금까지 안 보이던 것을 보이게 하는 즉, ‘다르게 보는 기준’을 제시하며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현실을 발견하도록 재촉한다.

작가는 자신의 의도를 숨긴 채,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템포와 역동성이 완전히 빠져버린 대낮의 한적한 마을 풍경을 무심한 듯 무정서적으로 접근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혼하디혼한 대상을 낫선 것으로 만들어버려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그 대상에 집중하게 한다. 그러면 처음에 보지 못했거나 혹은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된다. 그리하여 무덤덤하게 현존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친숙한 이미지들이 사실은 위험한 장소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마을에 마치 공기처럼 퍼져 있던 불안의 기원은 바로 그 위험한 장소에 있었던 것이다. “불안은 위험에 대한 반응이”였다. 그러므로 작가는 “불안한 정서가 정신의 경제에서 독특한 지위를 점하는 것이 어째서 위험의 본질과 관계가 있는지 그 이유를 의심”<sup>2)</sup>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그의 사진은 위험시대인 마을풍경의 단순한 재현이 아니다.

그 공간의 구조를 근원적으로 생각하고, 가장 금속적인 방식으로 ‘불안’의 존재를 제시하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불안의 존재를 낯선 사건으로 만들어 장소/체계가 바로 위협임을 보여준다.

외부의 위협/체계를 내면화한 불안은 사람이 임의로 선택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체계 속에서 자신이 무기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때 아이들과 사람들로 들쭉였을 그 공간과 거리에는, 풍요로운 소비사회의 트로피인 잉어나 여분은 사라져 버리고 공핍만이 흘러넘친다. 그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공핍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체계가 작동시킨 것이므로, “체계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조건만을 알고 있을 뿐 사회와 개인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왜냐하면 체계는 “자기 고유의 법칙에만 복종하”<sup>3)</sup>기 때문이다. 체계는 기계이다. 기계에는 정신적인 그 어떤 것도 달라붙어 있지 않다.

과거는 떨어져 나갔고,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 풍경2: 은폐된 불안

바다에 연해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마치 거대한 바벨탑처럼 서 있다. 원래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구름을 머리에 이고 자연인양 함께 뭉뚱그려 서 있다.

사이비 자연 앞 혹은 옆에서 휴가를 즐기는 “개인은 걸보기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회라는 경제적, 사회적 장치의 산물”<sup>4)</sup>이다. 아이들은 돌고래처럼 다이빙하고, 어른들은 낚시한다. 어느 쪽에서든 보이는 바벨탑은 그냥 거기에 서 있을 뿐이다.

“풍경이란 하나의 인식틀이며, 일단 풍경이 생기면 곧 그 기원은 은폐된다.”<sup>5)</sup> 풍경에 대하여 낯설다는 느낌을 잃어버리는 것, 풍경이 진리라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 그리하여 마침내 그 풍경이 나의 내면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은 모두 기원을 은폐한 ‘풍경’의 효과다.

테크놀로지에 의해 교육이 된 대중은 전기 문명에 흠뻑 도취해있으며, ‘포만감’에 젖어 일상이 되어버린 위협을 알아차리기에는 너무도 ‘둔감’하다. 그들은 부나 권력처럼 물질적으로 증명되는 것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미래의 구성요소를 의미하고, 행위자극으로서 아직 일어 ‘나지 않은 사건이며, 예방될 수 없는 무언가 비실제적인 성격을 가진 위협<sup>6)</sup>을 적극적으로 사유하고자 하지 않는다.

즐거운 여가를 보내던 한때의 가족사진은 체계의 알리바이이다. 일상적인 감수성의 세계가 잘 유지되고 있음에 대한 체계의 알리바이일 뿐이다. 이처럼 소비사회의 위협/체계는 대중들의 무지에 근거해서 작동된다. 사람들은 그저 각자가 속한 사회 시스템의 습관에 따라 사물을 지각하고 사고할 뿐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필요의 구체성은 위협의 인식을 억제하”<sup>7)</sup>게 된다.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한 저 부조리한 바벨탑과 맞닥뜨리게 될 때, 시스템에 함몰되지 않은 새로운 현실을 향해서 동경과 해방의 손길을 뻗치기를 원할 때, 거기서 잠시 멈추어 서서 자연화 된 풍경에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회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오히려 ‘인식의 조건과 한계’를 따지면서 이해해 버리는 일을 지연시키고 교란시켜버리는 것이야말로 제도가 개인의 의식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자세일 것이다.

“배가 빠르게 나아가기 때문에 이물에 파도가 부딪히는 것처럼 진보가 추구되기 때문에 위험이 나타난다. 위험은 결코 근대의 발명품이 아니다. 사회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위험이 허용되고 있다.”<sup>8)</sup>

#### 불안 그 가능성의 중심<sup>9)</sup>

작가는 위험사회의 불안이 내면화된 마을의 풍경과, 그 위험사회에 반항하지 않고 백기를 든 개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개인들은 ‘표준화된 집합적 존재’가 되어 사회가 조금씩 베풀어주는 행복한 장소에서 ‘여가’를 즐기고 있다. 이러한 연속성이 없는 두 개의 어긋난 세계가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는 장소를 이미지로 붙들어 세워 보이면서 작가는 비로소 자신의 의도를 드러낸다. 일상의 감수성이 되어버린 개인들의 불안한 내면을 원자력발전소라는 물리적 장소에서 발견하여 외부에서 바라보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불안이 우리의 내면에서 생성된 정서작용만이 아니라, 외부의 위험을 인식한 생리작용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문명의 적자가 가지는 불안은 현대풍요사회의 문명사적 역설이 되어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미지로 표현하려는 듯 보인다.

이미지는 논리적으로 엄격하지 않을지라도, 언어와는 달리 무한한 해석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가능성을 통해, 작가가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조건이 되어버린 불안을 이미지로 변환시킨 것을 보면서 단순히 긍정을 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그의 표현과 의도가 소통하는 지점이 우리의 문명이자 환경이 되어버린 ‘불가피한 현실성’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만 자신에게는 타자이며 외부로만 느껴지는 그 이미지들을 내부로 끌어 들여 사유와 대결시켜 보는 것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작가가 표현한 불안의 이미지들을 직시하여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것은 나아가 불안의 이미지들을 사유 가능성의 중심으로 이동시켜보려는 시도이다. 그리하여 우리를 한없이 무력하게 만드는 이미지들 사이로 작가가 표현해내지 못한, 사유 되지 않은 지점을 발견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불안은 심리학적인 것을 떠나 사회/체계의 문제를 들여다보게 하는 새로운 사유 가능성의 중심이다. 그것이 바로 ‘불안 그 가능성의 중심’이기도 하다.

---

1) 가라타니 고진, <탐구>, 권기돈 옮김 (새물결, 1998), 84쪽.  
2) 가라타니 고진, <억압, 중후 그리고 불안>, 황보석 옮김 (열린책들, 1980), 293쪽.  
3) 장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 정의숙 옮김 (문예출판사, 1993), 65쪽.  
4)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계몽의 변증법>, 김유동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05), 234쪽.  
5) 가라타니 고진,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박유하 옮김, (민음사, 2004), 32쪽.  
6) 올리히 벡, <위험사회>, 홍성대 옮김 (새물결, 2006), 73쪽.  
7) 같은책, 91쪽.  
8) 같은책, 92쪽.  
9) ‘불안 그 가능성의 중심’이라는 소제목은 가라타니 고진의 책 <마르크스 그 가능성의 중심>에서 따온 말이다.